

청양군 청년종합실태조사 분석 및 지역청년문제 연구

박 춘 섭

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사회적경제팀장
jacobp73@cni.re.kr

송 두 범

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단장
dbsong@cni.re.kr

이 연구는 청양군 청년들의 실태와 정책수요 분석을 통해 청양군 청년문제를 해소하는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.

CONTENTS

1. 연구개요
2. 청양군 청년실태 분석
3. 정책동향 및 사례 분석
4. 청양군 청년정책 방향 제언

요약

- 청양군 청년종합실태조사는 청양군이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. ①삶에 대한 인식, ②문화와 여가, ③교통 및 주거, ④소득과 부채, ⑤청년정책의 영역 조사함.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냄
- ‘삶에 대한 인식’은 자녀교육과 물가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나, 문화 및 체육, 의료 및 건강 등은 만족도가 낮았음
- ‘문화와 여가’는 주로 주말에 TV시청, 휴식 등을 취하며 실내에서 쉬지만, 관광, 문화예술관람 등 실외활동 욕구가 강하게 존재
- ‘교통 및 주거’는 주요 교통수단이 자가용이지만, 대중교통 활성화가 필요. 또한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성을 높게 나타냄
- ‘소득과 부채’는 응답자 청년 10명중 3명이 부채를 지고 있으며, 평균 4600만원. 이유는 주택마련 등 부동산 구매였음
- ‘청년정책’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, 살기 좋은 도시는 문화시설이 잘 갖추어진 도시를 선택했음
- 위의 결과를 기초로 청양군 청년의 ‘사회·문화욕구’ 해소를 중심으로, 청년정책방향을 ‘문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청년·청양’으로 제시
- 추진전략으로 ①문화역량 개발, ② 공공교통 확충, ③ 청년의 목소리 발신채널 구축을 제안

01 연구개요

1. 서론

- 현재 청년세대의 고용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며, 둘러싼 여건도 좋지 않음
 - 명목상 청년의 실업률은 9.9%(2017)로 전체 실업률(3.7%)의 2.7배 수준이지만, 실질적으로 청년 취업애로층(실업자+추가취업가능자+잠재경제활동인구)으로 판단하면 22.7%로 큰폭 상승
 - 또한 6개월이상 장기실업자 7만명(17.11월기준), 청년 NEET는 18.8%(177만명)¹⁾에 육박
 - 이러한 청년고용의 해소하기에는 글로벌 경제위기, 청년세대(에코세대)의 인구 일시 증가, 노동시장의 격차심화와 4차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여건이 좋지 않음
- 이는 비단 고용문제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 전반에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
 - 가구유형별로 청년단독가구의 빈곤율(19.9%)로 가장 높으며, 청년층은 고용뿐만 아니라 건강, 문화, 주거 등에서 앞선 세대와 비교할 때 큰 곤란을 겪고 있음(보건복지부, 2018)
 - 계층상향 이동에 대한 비관론, 즉 열심히 일해도 나아질 수 없다는 비관론이 확산되면서 'N포세대'가 등장하는 등 청년들은 열패감에 휩싸여 있음
 - 그러므로 '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'식의 접근이 아닌 긴급한 지원대상으로 정책지원 필요
- 본 연구는 청양군 조사를 기초로, 정책·사례분석 후 청양군 청년정책 방향 제안
 - 청양군이 실시한 청양군 청년종합실태조사를 토대로, 청양군의 청년의 삶과 정책수요를 파악
 - 현재 중앙정부 정책현황 및 타 지자체 정책사례 검토 후,
 - 청양군 청년문제(정책)와 대응하는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제시

1)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(2016년), 장기 비구직니트(6개월이상) 현황

02

청양군 청년실태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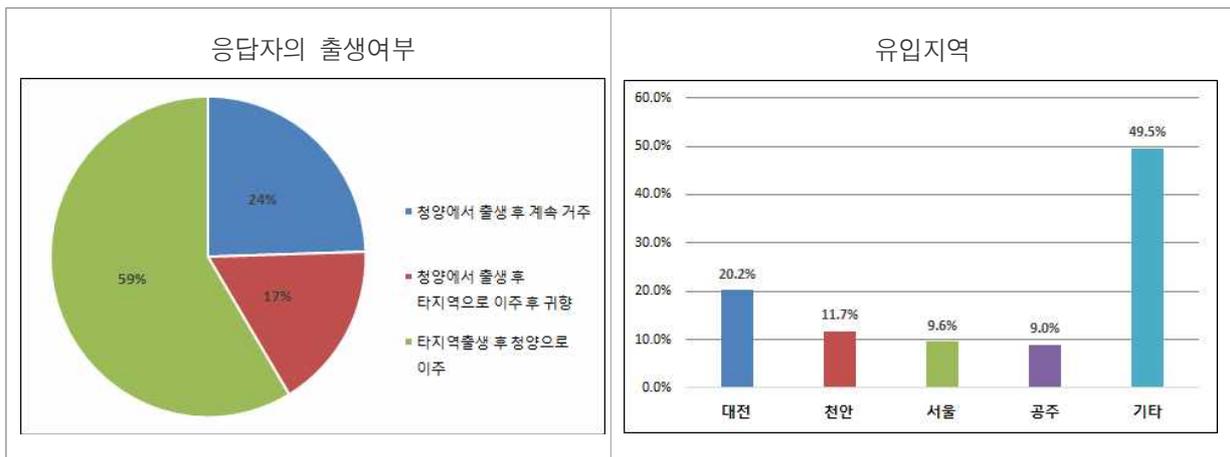
1. 조사개요

- 청양군은 청년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‘청양군 청년종합실태조사’ 실시
 - 조사목적은 청양군의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로 청양군 기획감사실 인구청년정책팀에서 추진
 - 청양군 청년 351명이 응답. 연령대는 만18~29세 68.2%, 만30세~39세 32.8%이며, 미혼이 78.1%, 직업은 학생이 34.2%, 회사원이 39.9%였음
 - 조사내용은 청년정책 수립에 필요한 ①삶에 대한 인식, ②문화와 여가, ③교통 및 주거, ④소득과 부채, ⑤청년정책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
 - 본 과제에서는 ‘청양군 청년종합실태조사’을 통해 청양군의 청년의 생활실태 및 니즈 파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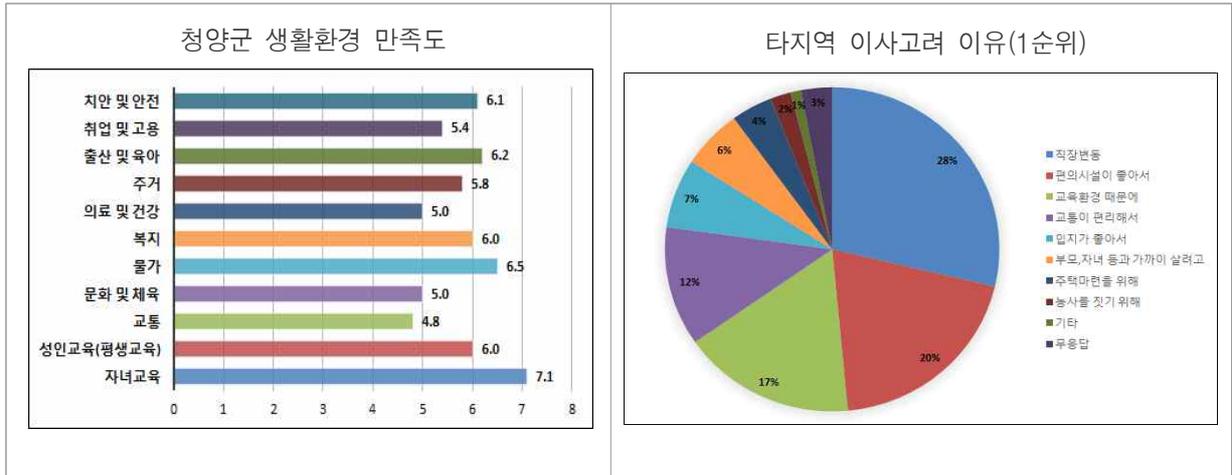
구분		응답자 수	비율
전체		351	100.0%
성별	남성	176	50.1%
	여성	175	49.9%
만나이	만18~19세	84	23.9%
	만20~29세	152	43.3%
	만30~39세	115	32.8%
결혼여부	미혼	274	78.1%
	재혼	77	21.9%
직업	학생	120	34.2%
	회사원	140	39.9%
	자영업	15	4.3%
	농축산업	16	4.6%
	무직	11	3.1%
	공무원	28	8.0%
	기타	21	6.0%

2. 삶에 대한 인식

- 응답자는 청양 출신 청년 41%, 직장파 학업 등을 위해 살게 된 이주청년 59%로 구성
 - 청양 출생후 계속거주 24%, 타지역 이주후 귀향 17%, 타지역 출생후 이주 59%
 - 유입지역은 대전 20.2%, 천안 11.7%, 서울 9.6%, 공주 9.0% 순
 - 청년들이 청양군으로 오는 주요한 이유는 직장 또는 학업 때문이며(71.3%), 부모·자녀와 같이 살기 위해서(10.6%)



- 자녀교육과 물가수준은 만족하지만, 문화 및 의료시설은 부족하다고 생각
 - 청양군의 생활환경 만족도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만족도(7.1/10점)가 높고, 물가(6.5), 출산 및 육아(6.2), 치안 및 안전(6.1)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, 문화 및 체육, 의료 및 건강(5.0), 취업 및 고용(5.4)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
 - 충남도 사회조사(2017)와 비교시, 자녀교육 만족도 높음은 교육환경(4.14) 불만족과 상반된 결과치임. 이는 청년층 자녀연령을 고려하였을 때, 청양군 유아·초등교육단계의 좋음으로 해석 가능. 그러나 면밀한 검토 필요
- 응답자의 40%는 직장과 편의시설, 교육환경의 이유로 대전, 세종, 서울로 이사를 고려
 - 1년 이내의 타 지역이사를 고려하고 있는 응답자가 40%로, 대전(16.8%), 세종(16.8%), 서울(13.9%), 공주(11.9%), 홍성(11.9%) 순이었음
 - 주요한 이유는 직장(학교)변동, 편의시설, 교육환경, 교통편리 등의 이유로 이사를 고려



- 사회참여, 소그룹모임 등을 통해 지역사회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, 청양군 지역사회의 폐쇄성(52.5%)이 관계형성을 힘들게 하는 요소임
 - 지역사회 관계는 사회참여와 문화생활(소그룹모임)을 통해 형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,
 - 관계형성이 어려운 점은 ①지역의 폐쇄성(52.5%), ②사생활 노출(23.8%), ③세대 갈등(10.9%), ④가치관 차이(9.9%)이었음

구분	지역 사회의 관계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					
	친구관계	사회적 참여도	학연지연	문화생활(소그룹모임)	기타	
전 체	101	23.8%	31.7%	12.9%	30.7%	1.0%

- 청양 거주자 중 최근 1년 이내 청양 이외 지역으로 이사 의향이 있는 자(101명 대상)

3. 문화와 여가

- 청양 청년들은 주말에 실내 활동(TV시청·휴식·컴퓨터 게임)을 하면서 여가를 보내고 있음
 - 주말 여가시간은 8.4시간으로, 주로 TV시청(30.5%), 휴식(17.9%),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(16.0%)으로 보내고 있음
 - 이와 같이 외부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, 여가시설 부족(40.0%), 시간부족(27.7%), 경제적 부담(15.4%), 정보부족(9.2%)을 선택
 - 향후 희망하는 여가활동으로 관광(27.1%), 문화예술관람(22.2%), 취미 및 자기개발 활동(13.4%) 등 선택. 실외활동 니즈가 존재

구분	주말/휴일 여가활동_1순위												
	TV시청	문화 예술 관람	문화 예술 참여	스포츠 관람 활동	스포츠 참여 활동	관광 활동	컴퓨터 게임, 인터넷 검색 등	취미, 자기개발 활동	휴식 활동	사회 및 기타 활동	기타	무응답	
전 체	351	30.5%	8.8%	1.4%	1.7%	5.4%	7.7%	16.0%	4.0%	17.9%	2.3%	4.0%	0.3%

● 여가활동을 위한 청양군 시설 이용촉진 프로그램 필요

- 청년들은 여가활동을 위해 군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
- 아래와 같이 청양군 공공시설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청년이 과반이 높음
- ※ 주민자치센터(88.3%), 청양도서관(70.1%), 국민체육센터(수영장)(89.5%), 문화예술회관(71.2%), 청양군시네마(62.7%), 평생학습센터(93.4%), 정산도서관(88.9%)
- 청양군시네마, 청양도서관, 문화예술회관 순으로 높았으며, 청양군시네마의 경우 2018년 2월 개관을 감안할 때, 청년들의 여가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
- 도서관의 경우 청양도서관은 5회 이상 이용자가 전체 응답자중 10%에 달할 정도로 높으나, 이용 만족도의 경우 다소 낮은 편(3.2점). 만족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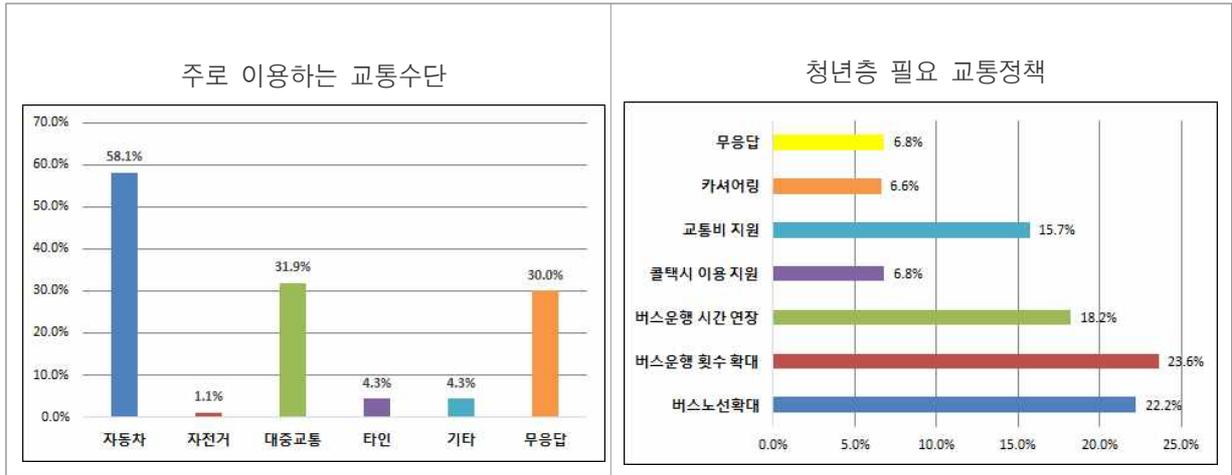
● 청양 청년의 사회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는 시간, 공간부족, 교통 불편으로 나타남

- 평소에 교류는 학교동창(64.4%), 고향친구(47.6%), 직장동료(37.3%)순이었음
- 정기적 참석모임이 없는 경우가 49.9%. 교류활동을 어렵게 하는 이유로는 교류시간(34.8%), 교통불편(31.1%), 공간부족(20.2%) 및 시설불편(14.8%)을 꼽았음

4. 교통 및 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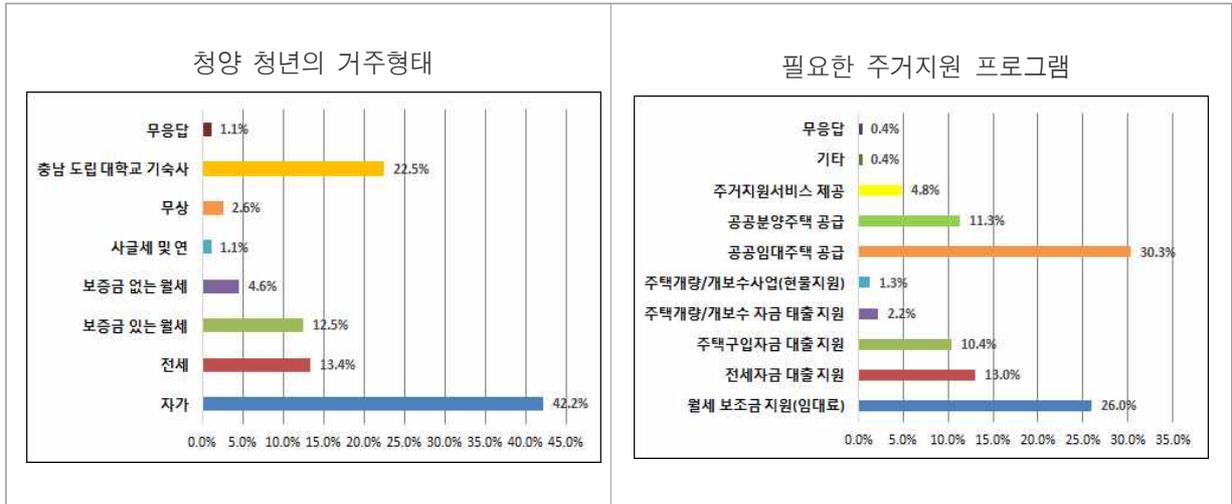
● 주요한 교통수단은 자가용(60%)이지만, 적극적인 공공교통 활성화가 필요

- 청양의 청년의 60%가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으며,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도 자동차임
- 그러나 40%의 자동차를 소유하지 못한 청년들은 대중교통(31.9%)을 이용하고 있으며, 버스 노선확대, 횡수 및 시간연장에 대한 욕구가 존재함
- 앞서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교통불편(31.1%)을 들고 있는데, 교통정책 활성화는 청년의 교류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



- 문화·예술 관람 및 쇼핑 등은 주로 대전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
 - 직장 등은 청양읍(63.2%)에 위치하나, 쇼핑할 때는 대전시(30.5%), 천안시(12.5%)에서, 문화예술 관람 등은 대전시(27.1%), 서울(12.3%) 등으로 주로 대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
 - 단, 친구 만날 때는 대전시(21.9%)와 청양읍(21.7%)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음
 - 쇼핑, 문화·예술 관람을 위한 시설확충 또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가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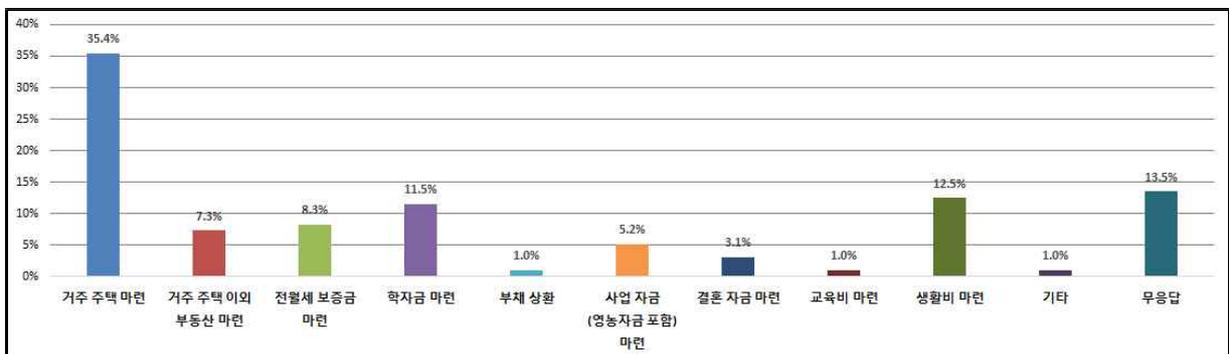
- 청양의 청년들은 일반주택에서 살고 있으며, 공공주택 공급의 필요하다고 생각함
 - 주거형태는 단독주택(30.5%), 아파트(25.9%), 기숙사(21.7%), 다세대주택(원룸포함)(19.9%) 순이며, 자가(42.2%), 기숙사(22.5%), 월세(18.2%), 전세(13.4%)로 살고 있음
 - 66%의 청년이 주거지원의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, 공공주택(분양, 임대) 공급이 1순위이며, 월세보조, 전세자금대출 순이었음



5. 소득과 부채

- 청양 청년의 10명중 3명은 부채가 있으며, 주택마련 등을 위해 대출을 받고 있음
 - 부채가 있는 청년은(27.4%)로, 평균 4,665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음. 부채를 지게 된 주요한 이유는 주택마련 등 부동산의 이유로 42.7%로 가장 많았고, 생활비 12.5%, 학자금 11.5% 등 순
 - 부동산 대출일 경우, 월 주택대출 원금 및 이자로 약 12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음
 - 부채의 61.5% 제1금융권의 부채이며, 우선적으로 필요한 금융정책은 ①저소득청년 대상의 저축상품, ②금융설계 교육 또는 컨설팅, ③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순으로 필요하다고 생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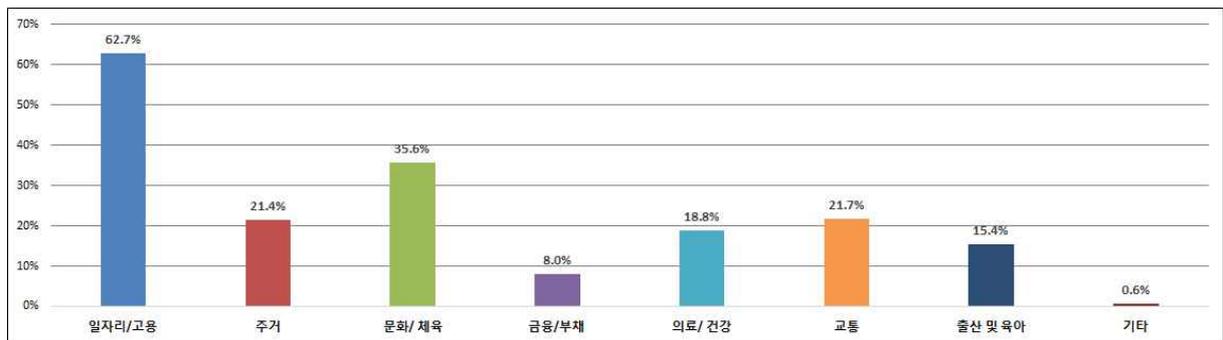
부채를 지게 된 가장 큰 이유



6.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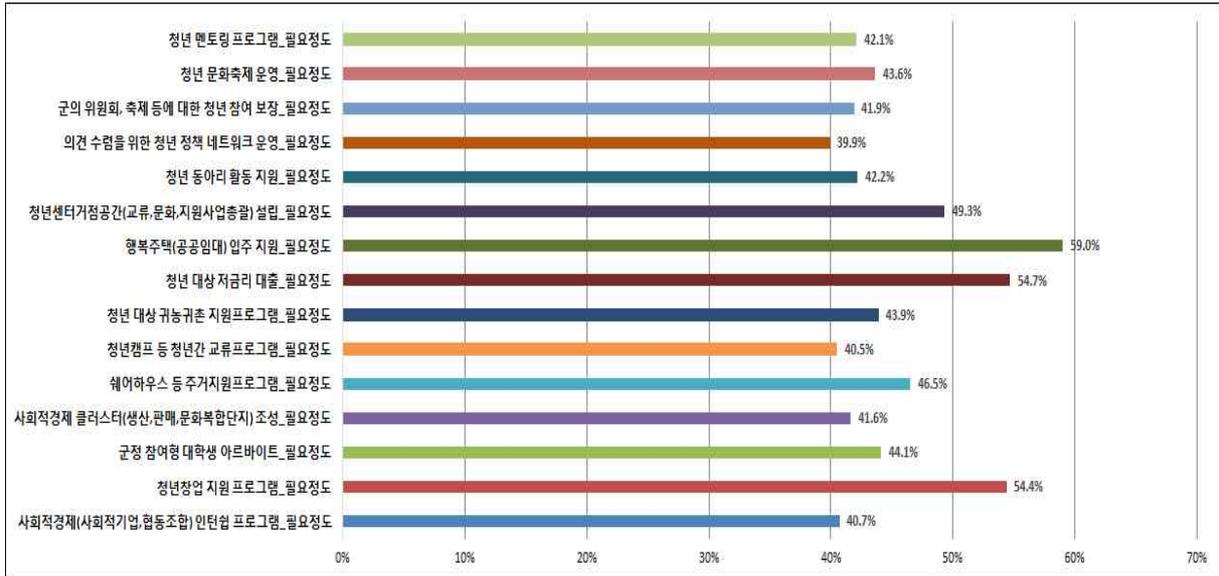
- 청양의 청년들은 청양군이 청년 일자리 확충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
 - 지금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로 일자리/고용(62.7%)를 꼽았으며, 문화체육(35.6%), 교통(21.7%), 주거(21.4%), 출산 및 육아(15.4%) 순의 필요를 나타냈음
 - 그러나 청양의 청년들의 일자리정책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, 관련 기관과 사업방문은 저조함. 일자리정보센터(85.2%), 일자리박람회(88.9%), 청년창업농 지원사업(93.2%), 청양사랑형내일채움공제(93.2%), 청년일자리사업(84.3%) 등 참여하거나 방문한 경험이 없음
 - 이는 현재 추진 중의 사업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니거나, 청년들에게 정보전달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 필요하며,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 추진이 필요

청년정책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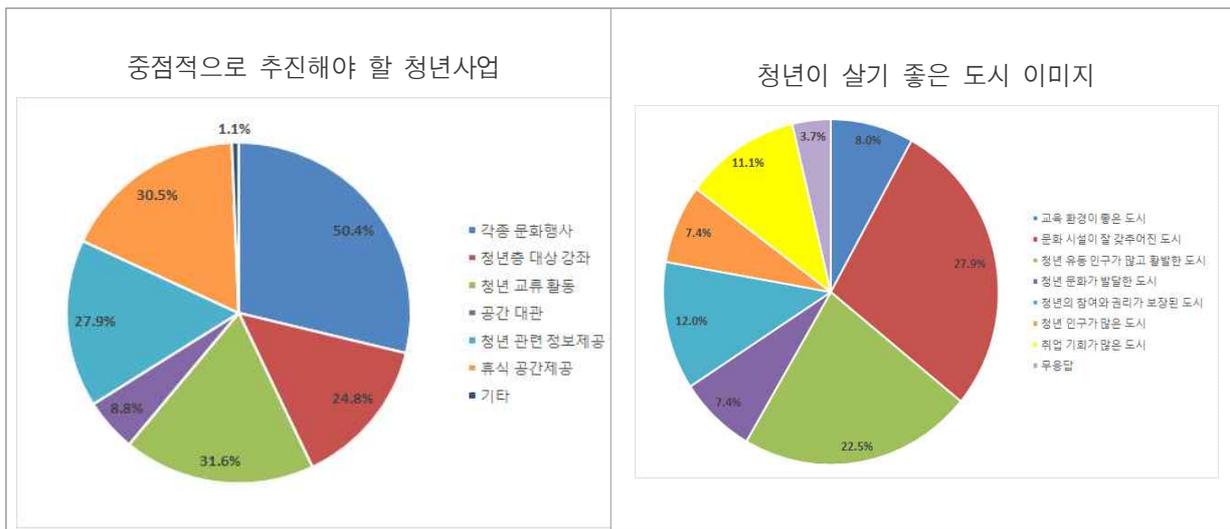
- 청양의 청년들은 정책수립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선호하나, 오프라인 참가도 가능
 - 청양군 청년정책 수립 참여방식으로, 이메일수신(21.9%), SNS로 의견개진(18.8%) 등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선호하나, 공청회참가 및 수립TF 참여(13.7%) 등 오프라인의 참가할 수 있음을 보여줌
 - 설문에 제시된 청년사업에 대해서는 청양 청년의 10명중 4명이 필요를 나타냈으나, 그중 청년대상 사업으로 ①행복주택(공공임대)입주지원(59.0%), ②청년대상 저금리 대출(54.7%), ③ 청년창업지원(54.4%) 등의 순으로 필요를 나타냈으며, 청년네트워크(39.9%), 청년캠프(40.5%)등 교류활성화 대해서는 높지 않았음
 - 이는 현재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판단. 단 후술 질문에 서 청년간 교류와 협력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음

청년정책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



● 청양의 청년들은 청양군을 활발한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‘문화도시 청양’을 꿈꾸고 있음

- 청년대상 사업으로, 각종 문화행사(50.4%) 개최를 가장 높게 꼽고 있으며, 청년간 교류활동 사업은 두번째(31.6%)로 높게 나왔음
- 청년을 위한 거점공간은 2.9개 필요하며, 희망지역은 청양읍(93.7%)와 정산면(43.3%)
- 청년이 살기 좋은 청양은 문화시설이 잘 갖추어진, 청년인구가 많고 활발하며, 청년의 참여와 권리가 보장된 도시임



03

정책동향 및 사례분석

1. 관련 법률과 제도

- 청년정책은 기능중심의 정책이 아닌, 대상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적인 시각이 필요
 - 현재까지 청년을 법률명에 명시한 법률은 ‘청년고용촉진특별법’이 유일하며, 고용문제만을 다루었다는 한계 존재
 - 대상중심의 정책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특정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, 청년을 취약계층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존재. 청년을 성인기 또는 청소년의 일부로 판단(김기현, 2017)
 - 그러나 청년실업이 9.9%(전체실업률 대비 2.7배), 주거, 학자금 대출, 결혼 및 출산연령의 고령화 등 사회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청년정책의 필요인식 확산
 - 그럼에도 청년정책의 몇 가지 쟁점이 존재 .①누가 청년인가(하한과 상한연령 결정), ②누가 할 것인가?(전담부처), ③ 무엇을 할 것인가?(정책사업) 등
- 현재 추진 중인 청년기본법의 내용(청년연령과 전담부처 결정)²⁾
 -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의 청년기본법 단일안 합의(5.24)하였음
 - 기본법의 개요 ① 정의: 국가와 지자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규정 및 청년정책 수립의 근거법, ② 청년범위 19세이상 34세 이하인 사람, ③ 관할: 국무총리실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정, ④ 주요내용: 청년친화도시 조성, 청년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향상, 주거 및 창업지원 등 청년시책 시행 권고
 -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, 위원회는 부처장관 들 포함. 정부와 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의무설치,

2) 한국경제 기사. ‘여야, 2030 지원하는 ‘청년기본법‘ 합의’(5.24) 참고

청년정책 추진시 자문심의과정 청년참여 의무화, 청년단체활동 지원금 제공

● 부처별 2018년 청년지원 사업 현황(정책사업)³⁾

1) 고용노동부

추진목표: 청년일자리정책 총괄 및 관리조정(15개부처, 60개사업, 3조126억원)

추진사업: ① 청년일자리창출지원(신규채용,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등)

② 청년일자리 여건개선

③ 청년 구직역량 강화·채용환경 개선(취업성공패키지 운영, 진로지도 인프라강화 등)

④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(현장밀착형 정책홍보 추진)

2) 교육부

추진목표: 대학생 창업지원강화 및 학비·주거 부담경감 목표

추진사업: ① 대학발 실전창업 붐 조성(창업인프라 강화 등)

②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(등록금 등)

③ 대학생 주거부담 완화(기숙사확충 등)

3)복지부

추진목표: 청년의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경로마련을 위한 정책 추진

추진사업: ① 청년층 건강지원 강화(관리사각지대)

② 취약계층 청년지원강화(일자리 및 인센티브확충)

③ 보호가 필요한 아동 자립지원강화(조기자립 경제적지원)

④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여건개선(종사자 처우개선)

4) 여성가족부

추진목표: 청년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일자리창출, 청소년근로 권익보호 지원, NEET 예방

추진사업: ① 2030 청년여성지원

② 청년여성 경력개발지원(멘토링, 사회적기업지원)

③ 청소년 근로권익보호(현장도우미 운영)

3) 국회 청년미래특위 업무현황 보고자료(2018.1.16.) 참고

④ 내일이룸학교(학교밖 청소년 대상지원)

⑤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지원

5) 국토부

추진목표: 주택제공, 청년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지원강화, 주거정보 제공, 전달체계 강화

추진사업: ①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(공공주택 총 19만호 공급, 39세이하)

② 청년 주거금융지원 강화(우대형 청약통장 도입, 전세자금 등 대출지원)

③ 주거정보 제공강화(myhome.go.kr)

6) 금융위원회

추진목표: 청년, 대학생의 경제적 어려움 경감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

추진사업: ① 주택금융 및 소액금융 지원(신DTI적용, 우대금리 등)

② 채무조정 지원(신용회복, 상환유예, 채무조정 등)

③ 취업지원, 금융교육 지원(사전금융교육 의무화 등)

2. 사례분석

1) 국내사례

●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'2020 서울형 청년보장, Seoul Youth Guarantee'

- 개요: 졸업유예, NEET⁴족, 초단기(불안정)시간근로자 등 대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'사회밖 청년', 즉 이행기에 놓인 청년(502천명)에 대한 정책공백을 메우는 사회안전망 구축

- 기간/구성: 2016년부터 5년간/20개사업(핵심 5개, 일반사업 15개) 추진

- 사업은 ①활동(설자리), ②노동(일자리), ③주거(살자리), ④공간(놀자리)의 4개분야, 20개 정책으로 추진되며, 5년간 7,136억원의 예산 투입예정

- 특징: 분절된 사업이 아닌 삶의 영역을 패키지화함으로써, 청년의 기본적 활동 토대 마련

4) Not in Education,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

2020 서울형 청년보장 사업내용

청년정책 20 (핵심전략 사업 5개 / 일반사업 15개)			
<p>설자리 4개 사업</p> <p>청년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역량강화</p> <p>청년활동지원 (신규)</p> <p>공익적 가치를 실천하는 장학생 지원</p> <p>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</p> <p>저소득 장학생 지원</p>	<p>일자리 9개 사업</p> <p>일자리 진입 지원 및 안전망 구축</p> <p>청년 뉴딜일자리 확대</p> <p>기술교육원 청년대상 직업훈련 확대</p> <p>챌린지 1000 프로젝트 (청년창업 지원)</p> <p>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</p> <p>서울일자리+센터 통합지원서비스 강화</p> <p>근로빈곤청년 사회보험료 매칭 지원 (신규)</p> <p>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</p> <p>신진 유망 예술가 지원</p> <p>문화예술매개자 양성과정 추진</p>	<p>살자리 4개 사업</p> <p>청년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</p> <p>청년 1인가구 맞춤형 공공주택 (신규)</p> <p>셰어형 기숙사 모델 개발 및 공급</p> <p>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</p> <p>대학생 희망하우징 공급</p> <p>반집 살리기 프로젝트</p> <p>청년과 어르신 주거 공유 (한지형 새마을길 새마을합형 동세어임)</p> <p>자차구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</p> <p>희망두배 청년통장 운영</p> <p>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간협력 활성화 (신규)</p> <p>간접생활안정 및 대환대출 자금 지원</p>	<p>놀자리 3개 사업</p> <p>청년활동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 확대</p> <p>청년활력공간 조성·지원</p> <p>청년허브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실행기반 강화</p> <p>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지원</p>

출처: <http://mediahub.seoul.go.kr/archives/931427>

● 서울시 청년정책의 전략사업과 내용

- ① 설자리사업: (청년활동지원)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이 사회참여 활동과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최대 6개월간 평균 50만원의 활동보조비용 지원
- ② 일자리사업: (청년 뉴딜일자리 확대) 공공부문 현장에서 일경험을 하도록 추진. 참여기간은 최대 23개월로, 서울시 청년허브,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기관의 지원 등 후속 창취업 연계 강화
- ③ 살자리사업: (청년 1인가구 맞춤형 공공주택) 1인 청년주거빈곤층에 공공임대사업 추진(쉐어형 기숙사, 토지임대부 사회주택, 대학 희망하우징 등 6개 사업) 및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돕고자 저축금액의 50~100% 매칭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추진
- ④ 놀자리사업: (청년활력공간 조성)청년들의 자율적인 커뮤니티 역량개발을 위한 청년활동종합공간 '청년청(서울혁신파크내 1동)'과 무중력지대 2020년까지 총 50개소 설치

2) 해외사례

●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도(Youth Guarantee)

- 개요: 유럽연합의 회원국 청년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편입을 위한 제도로 권고. 유럽 2020전략 목표인, ①2020년까지 20~64세의 노동가능인구의 75% 고용, ②조기학업중단률 10%미만, ③ 2천만명의 빈곤과 사회적 소외로부터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
- 추진내용: 25세이하 청년이 학교를 떠난 시점 또는 실업상태가 된 시점으로부터 4개월 이내 교육·훈련수준에 적합한 일자리 제공 및 필요한 교육·훈련 프로그램 제공 노력해야 함
- 특징: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즉각적 개입, 청년층의 이탈방지, 견습(도제)제도 운영, 중간지원기관 역할 및 파트너십 강화
- 유형: A 유형- 중등교육과 훈련이 끝나는 학생들이 직장으로 잘 이행되는 것
B 유형- 니트족들이 다시 취업과 교육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임

● 실제 국가마다 다른 기준과 지원제도가 설계되어 있음

- 입법화 유형: ①청년기본법(Youth Act)- 오스트리아, 핀란드, 네덜란드, 아일랜드 등
②노동법- 프랑스
③헌법적 조항: 벨기에, 이탈리아, 스페인
- 자격(실업상태 or 니트족), 대상(25세미만 or 30세미만), 기간(4개월 or 3개월) 등 다름
- 정책영역: ①취업교육과 훈련, ②보충교육과 학업중단, ③취업중개서비스, ④직접고용창출, ⑤ 채용유인책, ⑥창업유인책으로 구성되나, 직접고용창출은 제한적

● 청년보장제도 논의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짐(김종진, 2017)

- 국가수준의 프로그램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게 유연성을 제공
- 청년보장제는 단발성 정책이 아닌 파트너십 기반 총체적인 접근법일 때 효과적
- 청년층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장기 이탈했을 때 단순서비스로는 효과를 얻기 어려움
- 제도의 성공은 개입시기의 적절성에 달려있음
- 노동시장여건이 좋지 않을 때 장기실업상태나 비활동경제인구로 남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타깃그룹 선정과 철저한 지원이 필요

3) 충남사례

(1) 충청남도 청년정책

- 목적: 청년을 통해 행복한 충청남도를 비전으로, 참여·공동체·문화·일자리의 영역의 사업 전개
- 추진현황: 청년정책거버넌스 구성(2017.6) 및 운영하여, 공간·주거·부채·지원조직의 키워드로
①청년활동의 거점공간 구축, ②청년주거문제 해결 건의, ③생활금융교육으로 예방시스템 정립, ④ 청년시책 중간지원조직 구성 제안 등 선도사업 추진

● 2018년 충청남도 청년정책은 3대 추진방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진

① 정책컨트롤 기능정립

- ‘청년정책추진본부’ 구성운영, 중간지원조직(청년센터)설치, 시군 청년기본조례 제정 추진

② 청년니즈에 맞는 시책개발

- 정책참여 역량강화: 청년혁신놀이터 정책제안 사이트 개설, 거버넌스 정례화 등
- 경제적(일자리 등) 자립지원: 정부 국정기조 연계(기존사업+시도 창의적 선도사업) 추진 등
- 주거 및 생활안정: 청년공간 LAB 조성, 청년학교 확대, 임대료대출이자보전, 셰어하우스 조성 등
- 문화복지 지원: 청년공예클러스터 추진(부여), 콘텐츠코리아 랩 연계 청년예술인 육성강화 등

③ 청년정책 공감대 형성 및 인식개선 홍보 강화

(2) 당진시 ‘당진형 청년정책’

- 목적: 내일이 설레는 청년 당진을 비전으로, 청년이 주축이 된 새로운 도시 트렌드 창조
- 위의 정책비전과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추진방향을 제시
 - 청년문제는 특정계층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일자리, 보육, 문화를 아우르는 총체적 정책 추진
 - 수요자 중심의 획기적인 특화시책 발굴 추진(청년 위원회 구성)
 - 사회적경제 연계된 청년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
- 추진전략은 설자리(제도·소통), 일자리(고용·창업), 살자리(주거·보육), 놀자리(문화)로 체계화

● 당진형 청년정책의 4대 전략사업과 내용

① 설자리사업은 청년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 구축과 청년참여 및 소통장구 마련을 목적함

-2017년 추진사업: 청년기본조례제정(2017.5.30.), 청년정책위원회 구성,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, 당진청년센터 '나래' 운영, 청년층 주민자치 활성화

-2018년 신규사업: 청년타운 조성(현재 청년센터 연계, 지하1층~지상4층), 청년공간 확대(읍면 마을창고 등 활용), 청년민회 구성(참여예산제, 정책발굴 등), 청년공동체 소셜미션 발굴단

청년센터 '나래' 설치

- 위 치 : 舊 당진시 청사별관 리모델링(2개층, 1,458㎡)
- 사 업 비 : 750백만원(전액 시비) / 2017. 11. 25. 개관
- 입주시설 : 청년 커뮤니티 공간 및 일자리 지원시설 조성
- 1층) 커뮤니티 공간: 카페형 커뮤니티홀, 스터디룸, 세미나실
- 2층) 일자리 지원시설: 일자리센터, 청년창업지원센터, 미취업청년 전용 도서관
- 운영시간 : 월~금 09:00~21:00, 토 09:00~18:00 ※ 청년정책팀 상주 운영
- 토익스피킹, 한국사능력시험, 면접 클리닉, 직장인 영어회화 등
- 11개 프로그램 운영 9개월간 19,188명(일 평균 82명) 이용

커뮤니티홀



청년도서관



② 일자리사업은 청년대상 특화프로그램으로 취업경쟁력 제고, 청년아이디어 기반 창업생태계 조성

- 2017년 추진사업: 지역사회 청년학교 개설운영(온라인 마케팅과정 등 3개 과정 운영), 미취업 청년 전용도서관 운영, 맞춤형 청년인턴제 실시, 청년창업활동가 지원사업 추진(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등), 중소기업 계약학과 개설(82개 기업과 7개 학과 계약 운영)

- 2018년 신규사업: 맞춤형 청년인턴제(실업청년, 8개월), 내일나래서비스(공유옷장, 나래통장), 지역인재 채용확대(지역인재 우선채용협약기업 확대), 청년생활임금제(당진시생활임금 차액지원), 농업인월급제 확대실시, 청년스마트 창농가 육성,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 등

<청년인턴제 근무예시>

분 야	근무내용
행정학·평생교육	읍면동 주민자치사업 기획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
경제·경영·마케팅	청년창업지원센터, 소상공인 경영 매니저 등
시각디자인·홍보	SNS콘텐츠 제작 도우미(카드뉴스, 동영상 등)
문화·관광	삼교호관광사업소, 문화재단, 관광통역도우미, 관광지 해설사 등
복지·보육	복지재단, 지역아동센터, 읍면동 주민복지팀(맞춤형복지팀)
상담·노무	통합일자리센터, 노동 상담사무소 등
교육관련	청년센터 강사,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 문화의 집 방과후 학습 지도사

- ③ 살자리사업은 일자리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돌봄서비스 확대 등 시차원의 지원
 - 2017년 추진사업: 취업준비생 주거환경 위기자 발굴지원(밀린월세 지원), 아동돌봄공공서비스 확대(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운영 등), 방과후 마을학교(마을교육공동체 사업) 추진
 - 2018년 신규사업: WELCOME 청년쉐어하우스 설치(창업·창농가, 22년 15개 설치), 청년행복 주택(신혼부부, 21년까지 120호 조성), 신혼부부 전세자금 및 이자지원, GO!출산, 건강맘 사업 확대, 맘편한 도서관 서비스 운영, 미취업 청년 무료건강검진, 워킹맘 아이돌봄 확대 등
- ④ 놀자리사업은 청년공동체 활동을 기반한 청년문화 활성화 및 당진만의 차별화된 축제 개최
 - 2017년 추진사업: 지역사회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(충남도 공모사업연계), 해나루 달빛 학습촌 운영(청년전용 야간평생학습교육), 당진 청년의 날 및 청년마켓 등 개최
 - 2018년 신규사업: 청년의 날 지정운영, 당진청년마켓 운영, 청년특화거리 조성(원도심 빈점포 활용), 청춘 토토즐 운영(영화관 등 이용료특별할인), 나래 멤버십 운영(원도심가게 등 할인혜택 및 대여혜택),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확대, 대학 동아리 연합축제 개최 등

04

청양군 청년정책 방향 제언

1. 청년정책의 정책흐름과 시사점

- 청년정책은 고용(일자리)정책 중심에서 주거, 복지, 공동체의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
 - 우리나라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,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(Youth Guarantee) 등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히 하거나,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용중심의 정책적 노력이었음
 - 그러나 청년기본법 및 중앙부처, 서울시 등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청년정책을 고용정책으로 한정하지 않고, 삶의 전 부분 주거 및 공간, 복지, 공동체 등으로 확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
- 시군단위 지자체 청년정책은 면밀한 정책설계를 통한 패키지형 정책사업 개발이 필요
 - 지자체단위 청년정책의 경우, 삶의 영역의 각 부분, 즉 일자리·주거·공동체활동·공간 등 영역별 개별지원으로는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존재
 - 각 영역이 연계된 패키지형태(예) 돌봄+공동체)의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며, 이를 위해서는 세밀한 정책설계가 필요
 - 정책설계를 위해서는 청년대상 생활조사, 정기적 네트워크(포럼, 간담회)를 통한 소통(의견교환), 청년대상 아이디어 발표대회 등 다양한 측면의 근거의 축적과 합리적 활용이 필요함

2.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청양청년의 정책수요

- 청양 청년들은 자녀교육·물가수준에 만족하나, 문화·의료부족 및 공공교통 불편을 경험

- 자녀교육 만족도(7.1/10점), 물가(6.5점) 등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낸 반면, 문화 및 체육, 의료 및 건강(5.0)으로 낮게 나타남
- 이러한 불만족은 쇼핑 및 문화·예술관람을 주로 대전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또한 문화·의료시설 및 미흡의 문제만이 아닌 접근성의 어려움, 즉 공공교통의 부재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, 교통서비스에도 관심을 제고할 필요 존재
- 청양의 청년들은 일자리와 문화시설(행사), 주거 확충에 대한 정책적 필요 실감
 - 청년들이 느끼는 청양군 청년정책 우선순위는 일자리/고용(62.7%), 문화체육(35.6%), 교통(21.7%), 주거(21.4%) 순이었음
 - 청년들이 생각하는 청년이 살기 좋은 청양은 문화시설이 잘 갖추어진 청년인구가 많고 참여가 활발한 도시임

3. 청양군의 청년정책 방향

- 기본방향: ‘ 문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청년·청양 ’
 - 청년들이 청양에서 살 이유와 떠날 이유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일자리임⁵⁾
 - 그러나 청년들이 청양을 애착할 수 있는 문화적·사회적인 삶을 촉진할 수 없다면, 언제라도 청년들은 기회가 되면 쉽게 떠날 수 있음
 - 현재 청양군은 청년들에게 만족할 만한 문화시설(프로그램)을 제공하지 못하고, 지역이 가지는 폐쇄성(52%)으로 청년들은 사회적 관계망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역시 미흡
 - 그러므로 문화·사회적인 삶을 촉진할 수 있는 청년정책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,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수요에 기반한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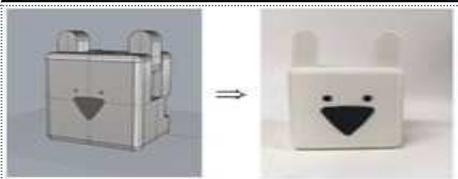
● 3대 추진전략

(1) 청양군 문화역량 개발

5) 청년일자리 정책수요가 높으나, 에 관한 추가적인 조사항목 없어 구체적인 일자리 전략(방안)을 제시하기에는 근거가 부족. 일자리 전략 등은 추후 추가적인 연구 및 조사(실태조사 등) 추진필요

- 청양군의 문화역량 개발을 위해 문화·관광시설 및 편의시설 조성을 장기적인 목표로 추진하는 동시에 단기적인 목표로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
- 단기적 목표인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행사개최는 ① 청년의 날 지정 및 행사추진, ② 공동체기반 문화프로그램 운영, ③ 마르쉐(농부마켓) 및 플리마켓 개최운영 등을 고려할 수 있음
- ※ ② 공동체기반 문화프로그램 운영의 경우, 당진시의 '지역사회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' 및 '해나루 달빛 학습촌'의 사례 참고

당진시 지역사회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활동내용

팀 명	활동내용	활동사진
도담 가구 제작봉사회	원목 책상세트 제작 후 기부 어려운 가정 청소년 대상 가구 제작 기부	
필쿠스틱	전통시장 버스킹 진행(상시) 찾아가는 런치 음악회(시청, 현대제철 등)	
합덕·우강 맘스카페	화장품, 액세서리 등 프리마켓활동 맘스스토리 플리마켓 & 가요제 개최(4회)	
Brewery201 (A·B)팀	당진특산물 활용 무알콜 수제맥주 개발 진달래 꽃, 해나루 쌀 등	
Evolve팀	3D프린터 활용 캐릭터 큐브 개발 및 제작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(우수상) 호서대 창의융합아이디어경진대회(최우수상)	

- 중장기적인 목표인 시설확충 및 조성의 경우, 일반적인 문화체육시설이 아닌 지역 랜드마크로서 기능이 가능한 컨테이너 문화공간 조성을 고려할 만 함
- 서울시의 플랫폼 창동 61은 경우, 창동상계지역에 대형컨테이너로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, 음악공간(공연장, 합주실, 스튜디오), 라이프스타일 공간(쿠킹클래스, 패션클래스), 커뮤니티공간, 예술공간(K-pop 갤러리, 포트레이트 갤러리 등)으로 구성됨
-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정기적인 음악공연, 페스티벌이 개최되어 문화관광지로서의 역할가능

플랫폼 창동 61의 모습



출처 : <http://opengov.seoul.go.kr/seoullove/10248226>

(2) 청양군 공공교통 확충

- 청양의 청년들이 자유롭게 청양의 곳곳을 이동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되,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(노선버스) 확충 및 노선확장을 목표로 추진하며,
- 단기적으로는 대중교통서비스의 이용패턴 파악을 통한 개선과 공유플랫폼을 활용한 공유택시 활용도 고려할 만함. 일본의 교탄고시(京丹後市)의 200엔 버스 등 교통시스템은 참고가능
- 교탄고시의 200엔버스의 경우, 시민들의 버스이용조사를 통해 이용패턴 파악 후, 몇차례 시범사업을 통해 균일운임 200엔 버스를 운행 중임. 일본의 경우 운행거리에 따라 요금이 다른데, 최대 1,150엔의 운임을 200엔으로 낮추어 성공적으로 운행
- 성공요인은 철저한 수요조사와 시민들의 니즈에 맞춘 버스운행을 만들어 탑승객을 2배이상 늘렸기 때문임. 또한 보완적인 우버택시와 같은 공유택시 플랫폼도 중요한 역할을 함

휴대폰 앱으로 가능한 우버택시 설명(교탄고시 우버택시)



출처 : <http://www.mlit.go.jp/sogoseisaku/soukou/soukou-magazine/1608kyoutango.pdf>

(3) 청양군 청년의 목소리 발신채널 구축

- 청년의 니즈를 청양군정 및 지역사회에 발신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의 구축이 필요하며, 채널은 네트워크 등 인적기반 구축, 공간 및 제도정비, 청년정책 입안 등이 단계적으로 발전
- 우선 청년정책네트워크(또는 포럼)과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 청년들의 필요와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화를 위한 논의 추진
- 이러한 인적기반을 기초로 청년기본조례 제정 및 청양군내 부서 구축, 청년공간 조성 등 제도정비
- 최종적으로 청년에 의한, 청년을 위한, 청년의 예산 및 정책입안을 할 수 있는 채널 구축

참고자료

- 고용노동부(2018), 청년일자리 업무현황,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회의자료(2018.1.16.)
- 교육부(2018), 교육부 업무현황보고,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회의자료(2018.1.16.)
- 국토부(2018), 주요업무현황,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회의자료(2018.1.16.)
- 금융위원회(2018), 청년 대학생 금융지원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,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회의자료(2018.1.16.)
- 김기현(2017). 청년정책의 현황 진단과 개선방향. 보건복지포럼
- 김종진(2017). 해외 청년보장제도와 한국의 청년수당 개선방향, 서울시 청년보장정책 토론회 자료(2017.2.20)
- 당진시(2018). “청년, 청년을 말하다” 토론회 자료
- 마시밀리아노 마스케리니(2015). 유럽 청년보장: 유럽 청년정책의 새로운 기본틀,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5월호 pp.5~26
- 보건복지부(2018), 보건복지부 청년대책,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회의자료(2018.1.16.)
- 서울특별시(2016). 2020 서울형 청년보장(Seoul Youth Guarantee)
-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 세움(2016). 충청남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
- 여성가족부(2018), 청년여성 및 후기청소년 주요 업무현황 보고,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회의자료(2018.1.16.)
- 충청남도 미래정책과(2018). 2018년 청년정책추진상황
- 충청남도(2017). 충청남도 사회조사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조달 조사보고서
- 野木秀康(2016),京丹後市のさまざまな公共交通施策について,国土交通省 会議資料 (<http://www.mlit.go.jp/sogoseisaku/soukou/soukou-magazine/1608kyoutango.pdf>)